

일본 경제 동향_2017년 1월

(아베노믹스의 과제와 전망)

< 목 차 >

I. 일본 경제 지표	1
II.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	2
1. 경기회복세 지속	2
2. 무역수지 4개월 연속 흑자	6
3. 엔저 급가속·주가 급등	9
4. 해외직접투자 2개월 연속 감소	10
III. 일본의 주요 정책	12
1. 아베노믹스의 과제와 전망	12
IV. 한일 경제관계 분석	15
1. 대일 무역적자 증가세 반전	15
2. 일본인 직접투자 큰 폭 증가	17
V. 참고 자료	19
1. 주요기관 연구보고서	19
2. 주요 경제 일정	21

I. 일본 경제 지표

구 분	2014	2015	2015		2016					
			3/4	4/4	1/4	2/4	3/4	10월	11월	12월
경기동향지수(일치지수, 2010=100)	-	-	-	-	-	-	-	113.5	115.1	-
GDP증가율(연율,%)	△0.0	0.5	0.8	△1.8	2.8	1.8	1.3p)	-	-	-
국내투자 (조엔)	민간설비투자	69.5	70.1	17.9	17.2	20.1	15.8	19.9p)	-	-
	공공투자	24.5	23.4	5.0	6.1	6.5	4.3	6.1p)	-	-
해외직접투자(조엔)*	79.0	70.0	17.6	21.8	19.6	12.7	18.6	5.4	4.8	-
소비자물가	전기비	2.6	0.5	0.0	0.1	△0.2	△0.1	0.0	0.2	0.0
상승률(%)	전년동기비	2.6	0.5	△0.1	0.0	△0.1	△0.4	△0.5	△0.4	△0.4
실업률(%)		3.6	-3.4	3.4	3.2	3.2	3.2	3.0	3.0	3.1
수출(조엔)		73.1	75.6	19.0	18.8	17.5	17.0	17.0	5.9	6.0
수입(조엔)		85.9	78.5	20.0	19.0	17.2	15.5	16.0	5.4	5.8
무역수지(조엔)		△12.8	△2.9	△1.0	△0.2	△0.3	1.5	1.0	0.5	0.2
경상수지(조엔)		3.9	16.4	5.0	3.6	5.9	4.6	5.7	1.7	1.4
환율	달러	105.8	121.1	122.3	121.5	115.3	108.1	102.4	103.8	108.2
	원화(100엔)	996	935	957	953	1,043	1,076	1,095	1,084	1,074
금리(10년물,%)		0.55	0.36	0.40	0.31	0.051	-0.121	-0.128	-0.060	-0.014
주가(닛케이)		15,460	19,203	19,474	19,035	16,843	16,393	16,500	17,045	17,690

주: p)는 2차 속보치 *실행액 기준, 자료: 일본 내각부, 재무성, 총무성, 후생노동성, 한국은행

☐ (경기판단) 경기회복세 지속

- '16.11월 경기동향지수(2010년=100)는 115.1로 전월비 1.6p 상승

☐ (소비자물가) 소비자물가 제자리걸음

- '16.11월 전월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.0%

☐ (무역수지) 무역수지는 6,414억 엔 흑자

- '16.12월 수출은 6조 6,790억 엔, 수입은 6조 376억 엔

☐ (환율) 엔저 가속

- '16.12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 평균치는 116.0 엔으로 전월비 7.2% 엔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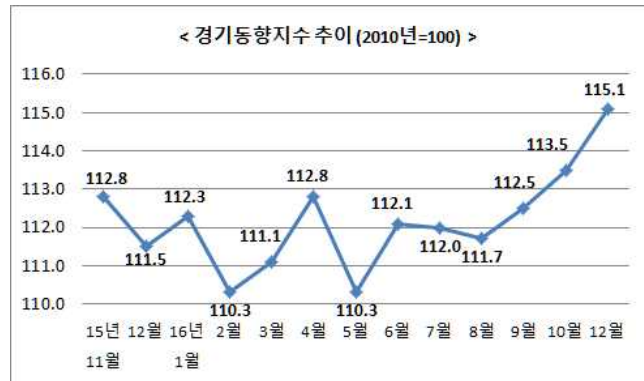
* '16.12월 엔/원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1,019원으로 전월비 5.1% 엔저·원고

II.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

1. 경기회복세 지속

□ (경기기조 판단)

- 세계적인 IT사이클의 개선과 엔저를 배경으로 생산과 수출이 회복되고 있는데다, 고용·소득이 건조를 보임에 따라 개인소비도 회복되고 있음
-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11월 경기동향지수(일치지수, 2010년=100)는 전월비 1.6p 상승한 115.1로 3개월 연속 상승



- 생산 및 소매액 등 6개 지표가 전월보다 개선된 점이 경기동향지수 상승의 주된 요인
- 일본 내각부는 전월에 이어 개선되고 있다는 경기기조판단을 유지

□ (전 망)

- 앞으로도 일본경제는 엔저를 배경으로 IT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의 호조, 개인소비 회복에 공공투자까지 가세하여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
- 특히 2016년 8월 2일 일본 각의에서 결정된 28조 엔 규모의 경제대책과 최근 미일금리차 확대에 따른 엔저 및 주가상승 영향으로 수출, 내수 모두 회복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
- 수개월 이후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지수는 102.7로 전월보다 1.9p 개선
- 다만, 일본경제가 아직은 소득의 증가와 지출의 확대라는 선순환을 원동력으로 하는 자율적인 회복 메커니즘을 찾지 못하고 있음. 그리고 이것이 경기의 발목을 잡고 성장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우려는 있음

<GDP>

- 일본 내각부가 12월 8일 발표한 2016년 3분기 실질 GDP성장률(2차 속보치)은 전기비 0.3%, 연율 환산으로는 1.3%로 1차 속보치(2.2%)에 비하여 크게 하향수정
 - 민간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이 하향수정의 주된 요인. 민간설비투자는 $\Delta 0.4\%$ 로 1차 속보치 0.03% 증가에 비하여 마이너스로 반전된 반면, 공공투자는 0.1% 증가로 1차 속보치 0.7% 감소에 비하여 플러스로 반전
 - 실질 GDP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외수가 0.3%로 1차 속보치 0.5%에 비하여 하향수정, 내수도 $\Delta 0.0\%$ 로 1차 속보치 0.1%에 비하여 하향수정
 - GDP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외수는 수출이 1차 속보치의 2.0% 증가에서 1.6% 증가로, 수입은 1차 속보치의 0.6% 감소에서 0.4% 감소로 하향수정
 - 개인소비는 0.3% 증가로 1차 속보치 0.1% 증가에 비하여 상향 수정된 가운데, 휴대전화와 자동차의 판매는 증가한 반면, 기후불순의 영향으로 음료판매가 감소
- 일본정부는 2016년도에도 2015년도의 1.3%와 비슷한 성장률을 보이는데 이어 2017년도에는 약간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나 1.5%정도로 실질 2%의 성장률 목표에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전망
- 한편, 일본의 민간 경제조사기관들의 경제성장을 전망치(14개 기관 평균치)는 일본 정부의 전망치를 약간 하회. 2016년도에는 1.2%의 경제성장, 2017년에도 개인소비와 설비투자의 회복에 힘입어 2016년도와 동일한 1.2%의 경제성장

<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(%) >

구 분	2014	2015	2014	2015				2016		
			10-12월	1-3월	4-6월	7-9월	10-12월	1-3월	4-6월	7-9월
전기비			0.5	1.5	$\Delta 0.1$	0.2	$\Delta 0.4$	0.7	0.5	0.3
전기비연율	$\Delta 0.0$	0.5	2.1	6.3	$\Delta 0.5$	0.8	$\Delta 1.8$	2.8	1.8	1.3p
전년동기비			$\Delta 0.4$	$\Delta 0.1$	1.8	2.1	1.1	0.4	0.9	1.1

자료: 내각부, p)는 2차 속보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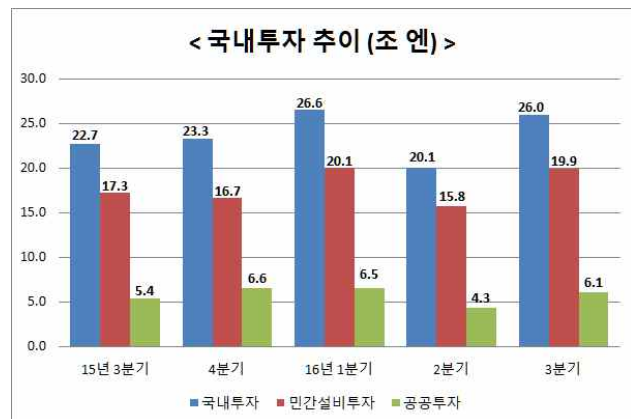
<국내 투자>

□ '16.3분기 국내투자, GDP의 19.9%

- '16.3분기 국내투자(민간설비투자+ 공공투자: 명목기준)규모는 전기비 10.9% 증가한 26.0조 엔으로 GDP의 19.9%

□ (민간설비투자)

- '16.3분기 민간설비투자는 명목기준으로 전기비 8.9% 증가한 19.9조 엔, 국내투자의 76.4%를 차지
- 실질기준으로는 엔고와 세계경기 침체 영향으로 전기비 0.4% 감소
- 일본은행의 단기경제관측조사(12월 조사)에 의하면 2016년도 설비투자계획은 전 산업에서 5년 연속 증가, 제조업은 6년 연속 증가, 설비투자의 과잉감은 회복상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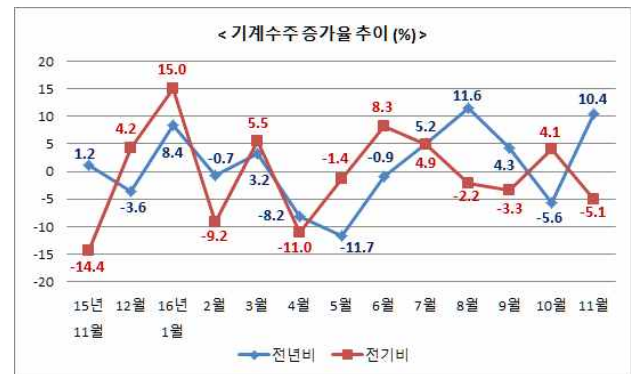
자료 : 내각부

- 다만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11월 기계 수주는 전월비 5.1% 감소

- 일본 내각부는 설비투자의 회복세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전월의 기초판단을 유지

□ (공공투자)

- '16.3분기 공공투자는 명목기준으로 전기비 18.0% 증가한 6.1조 엔으로 국내투자의 23.6%를 차지



자료 : 경산성, 내각부

- 최근 공공투자의 기반은 탄탄한 편

- 12월의 공공공사 청부금액은 전년동월비 5.3% 증가

- 2016년 8월 2일 각의에서 결정된 28조엔 규모의 경제대책 등이 실시됨에 따라 공공투자에 의한 경기부양효과가 가시화될 전망

<소비자물가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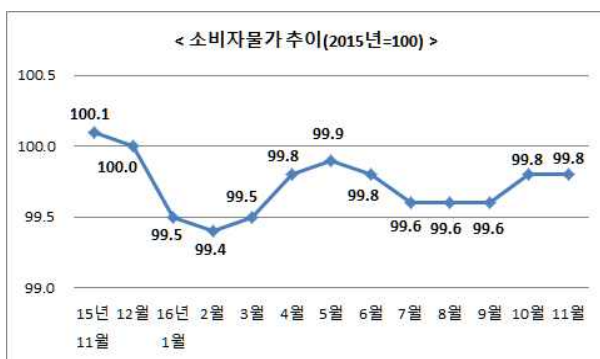
□ '16.11월 소비자물가 제자리걸음

- '16.11월 소비자물가지수(생선식품을 제외한 코어 CPI)는 전년비 99.8(2015년= 100)로 전월비 상승률은 0.0%
 - 전년동월비로는 에너지가격 하락의 영향에 따른 전력요금 등의 하락으로 0.4% 하락
 - 그러나 에너지를 제외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비 0.2%
-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엔저와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완만한 상승을 보일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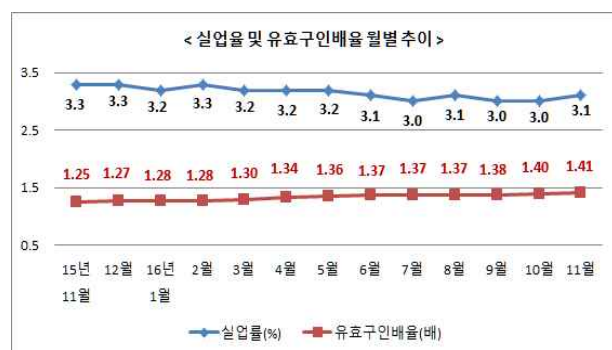
<실업률>

□ 고용사정 개선 지속

- '16.11월 완전 실업률은 전월보다 0.1%p 높은 3.1%
 - 자발적 이직자와 신규 구직자의 증가가 실업률 상승의 주된 원인
 - 완전실업자 수는 205만 명으로 전월보다 8만 명 증가
- 유효구인배율은 0.01p 상승
 - '16.11월 유효구인배율은 전월보다 0.01p 상승한 1.41배로, 3개월 연속 상승
 - 전자부품제조업과 고무제품제조업에서 신규 구인수가 크게 증가
- 일본 정부는 계속 고용 사정이 개선되고 있고, 앞으로 고령화를 배경으로 수요가 높은 의료·복지 분야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



자료 : 총무성



자료 : 후생노동성

2. 무역수지 4개월 연속 흑자

(총 합) 수출의 호조에 의한 무역수지 흑자

- '16.12월 무역수지는 6,414억 엔 흑자로 4개월 연속 흑자
 - 수출의 호조로 흑자폭이 전월보다 확대
 - 최대 적자국인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는 전월의 3,842억 엔에서 1,822억 엔으로 축소된 반면, 최대 흑자국인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는 전월의 5,811억 엔에서 7,196억 엔으로 확대
 - 對 한국 무역수지흑자는 전월의 1,892억 엔에서 2,330억 엔으로 확대
- 2016년 연간 누계로 본 무역수지는 4조 741억 엔 흑자로 6년 만에 흑자 전환
 - 그러나 수출 감소에 유가하락에 따른 수입의 큰 폭 감소를 동반한 축소균형형 무역흑자
 - 對 중국 무역적자는 2015년의 6조 1,911억 엔에서 2016년에 4조 6,531억 엔으로 크게 축소된 한편, 對 미국 무역흑자는 2015년의 7조 1,717억 엔에서 2016년에 6조 8,347억 엔으로 축소

< 2016년 12월 일본의 수출입 (조엔, %) >

	2016.11월			2016.12월			2016.1-12월	
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기비
수 출	6.0	-0.4	1.7	6.7	5.4	11.7	70.0	-7.4
수 입	5.8	-8.8	0.7	6.0	-2.6	3.4	66.0	-15.9
수 지	0.2	-	-60.0	0.6	361.6	200.0	4.1	-

자료 : 재무성

□ (수 출) '16.12월 수출, 금액·물량 모두 증가

- '16.12월 수출은 전월대비 11.7% 증가한 6조 6,790억 엔
 - 전월의 1.7% 증가에 비하면 수출은 호조
 - 수출물량도 전월대비 6.1% 증가
 - 5대 수출 품목은 전월과 변동이 없는 가운데, 모두 품목의 수출이 증가
 - 자동차부품의 수출 증가폭이 전월비 19.3%로 가장 크며, 이어 철강과 반도체 등 전자부품의 수출도 10%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

< 2016년 12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 (억 엔, %) >

순위	품목	2016.11월			2016.12월			2016.1-12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기비
1	자동차	10,295	-8.5	3.6	10,567	-4.7	2.6	113,330	-5.9
2	자동차부품	3,050	10.4	-0.2	3,639	16.5	19.3	34,609	-0.6
3	반도체 등 전자부품	3,146	6.5	-1.4	3,497	14.9	11.2	36,085	-7.8
4	철강	2,271	-12.1	-1.7	2,624	-4.8	15.5	28,433	-22.5
5	원동기	2,229	11.1	10.1	2,387	6.5	7.1	24,167	-6.7

자료 : 재무성

- 주요 지역·국가에 대한 수출도 모두 증가

- 대만에 대한 수출증가폭이 19.8%로 가장 크며, 여타 지역·국가에 대한 수출도 10%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
- 對 한국 수출은 전월비 17.7% 증가

○ ‘16년 연간 수출은 70조 392억 엔으로 전년비 7.4% 감소

- 수출물량은 전년대비 1.1% 증가

- 5대 수출품목 모두 수출이 감소한 가운데, 철강의 감소폭이 -22.5%로 가장 큼

- 지역별 수출도 주요 지역·국가에 대한 수출이 모두 감소한 가운데, 아세안에 대한 수출 감소폭이 -9.7%로 가장 큼

- 對 한국 수출은 전년대비 5.7% 감소

< 2016년 12월 일본의 주요 지역·국가별 수출 (억 엔, %) >

순위	국가	2016.11월			2016.12월			2016.1-12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기비
1	미국	12,112	-1.8	1.2	13,697	1.3	13.0	141,431	-7.1
2	중국	11,032	4.4	2.6	13,013	12.5	18.0	123,622	-6.5
3	ASEAN	8,849	0.5	3.2	10,047	9.2	13.5	103,802	-9.7
4	EU	6,333	-2.2	-2.6	7,110	-4.0	12.3	79,821	-0.0
5	한국	4,305	11.9	2.9	5,069	19.6	17.7	50,212	-5.7
6	대만	3,517	-1.2	-4.1	4,212	11.4	19.8	42,675	-4.6

자료 : 일본 재무성

□ (수 입) ‘16.12월 수입 금액은 증가, 물량은 감소

○ ‘16.12월 수입도 전월비 3.4% 증가한 6조 376억 엔

- 수입물량은 전월비 1.5% 감소
- 5대 수입 품목은 전월과 변동이 없는 가운데, 통신기와 의약품은 제외하고는 모두 수출이 증가
- 수입증가품목 중 원유의 수입증가폭이 21.4%로 가장 큼
- 수입감소품목 중 통신기의 수입 감소폭이 10.1%로 가장 큼

< 2016년 12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 (억 엔, %) >

순위	품목	2016.11월			2016.12월			2016.1-12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기비
1	원유	4,939	-14.4	23.8	5,994	1.8	21.4	55,341	-32.4
2	액화천연가스	3,012	-20.6	24.2	3,234	-25.5	7.4	32,839	-40.4
3	의류 및 동부속품	2,265	-15.8	-2.9	2,369	-10.8	4.6	29,951	-12.3
3	통신기	2,567	-4.7	-22.7	2,307	16.8	-10.1	27,227	-7.2
4	의약품	2,416	-28.5	1.7	2,286	-17.7	-5.4	27,660	-5.4

자료 : 일본 재무성

- 주요 지역·국가로 부터의 수입은 EU와 중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입이 증가

·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폭이 전월비 13.5%로 가장 큼

○ ‘16년 연간 누계로 본 수입은 전년보다 15.9% 감소한 65조 9,651억 엔

- 유가하락과 엔고가 수입액 급감의 주된 요인
- 수입 물량도 전년비 0.3% 감소
- 5대 수입품목 모두 수입이 감소한 가운데, 액화천연가스의 수입 감소폭이 -40.4%로 가장 큼
- 지역별 수입은 주요 지역·국가로부터의 수입이 모두 감소한 가운데, 호주로부터의 수입 감소폭이 -21.4%로 가장 큼
-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월비 16.2% 감소

< 2016년 12월 일본의 주요 지역·국가별 수입 (억 엔, %) >

순위	국가	2016.11월			2016.12월			2016.1-12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기비
1	중국	14,874	-9.9	5.0	14,836	-5.0	-0.3	170,153	-12.4
2	ASEAN	8,606	-6.3	4.1	8,748	-7.4	1.7	100,445	-15.2
3	EU	7,170	-13.3	6.2	7,157	-4.8	-0.2	81,361	-5.7
4	미국	6,301	-5.1	2.2	6,501	9.6	3.2	73,084	-9.3
5	호주	3,232	-2.8	12.3	3,479	7.2	7.6	33,078	-21.4
6	한국	2,413	-3.4	6.5	2,739	2.0	13.5	27,190	-16.2

자료 : 일본 재무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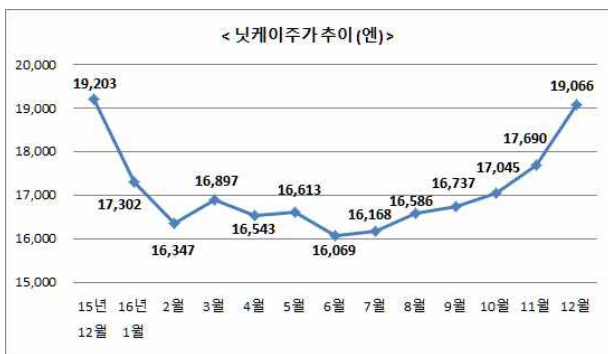
3.엔저 급가속 · 주가 급등

□ (주 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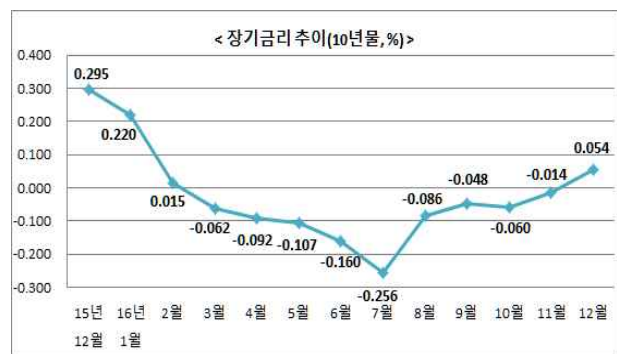
- ‘16.12월 평균 주가는 전월비 7.8% 상승한 19,066엔

□ (금 리)

- ‘16.12월 평균 10년 장기국채 금리는 전월의 -0.014%에서 0.054%로 플러스 반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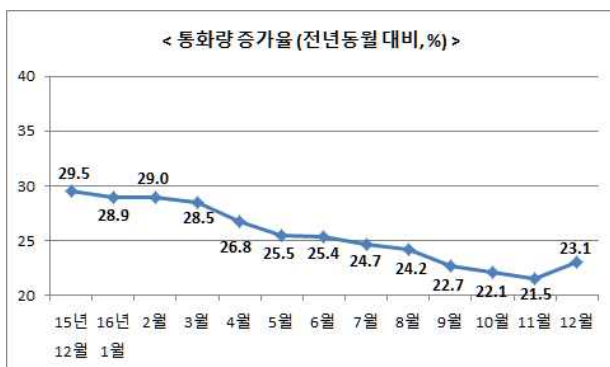
자료 : 일본경제신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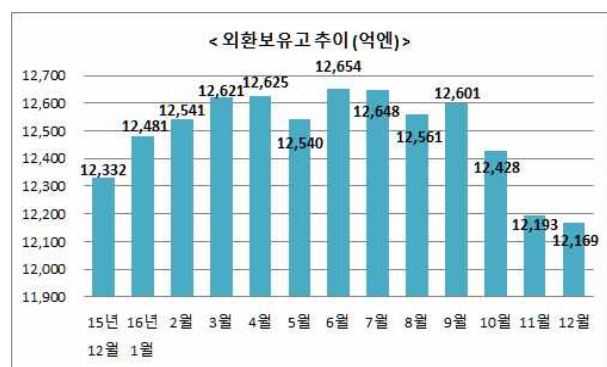
자료 : 일본상호증권

□ (통화량)

- ‘16.12월 본원통화(머니리베이스 기준), 통화량증가율은 일본은행의 자산매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23.1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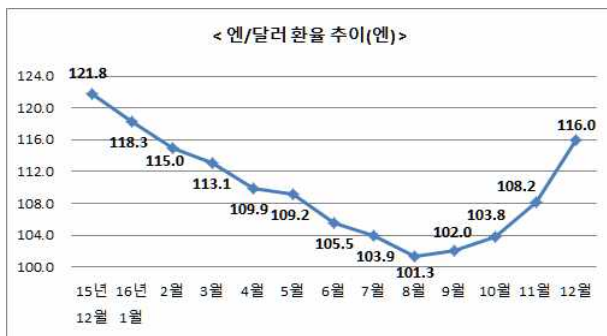
자료 : 일본은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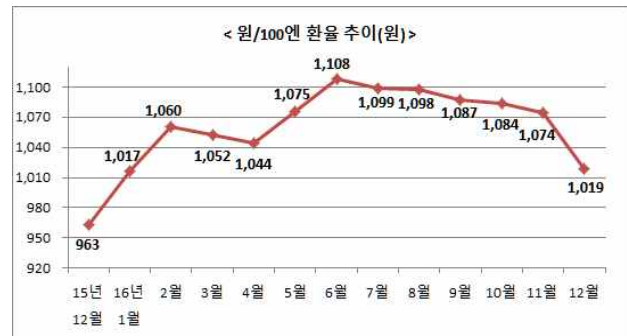
자료 : 재무성

□ (환 율)

- ‘16.12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평균치는 전월비 7.2% 상승한 116엔(엔저)
 - ‘17.1월 들어서는 엔저세가 다소 약화, 12월 19일 기준 달러당 114.1엔
- 최근 엔저 가속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 및 FOMC의 금리인상 등을 배경으로 한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 및 이에 따른 미일금리차 확대 등이 주된 요인
 - 그러나 급격한 달러화 강세의 부작용에 대한 미국 내 경계가 엔고반전을 야기할 가능성은 있음
- ‘16.12월 엔화의 대 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1,019원으로 전월의 1,074원에 비하여 5.1% 엔저·원고



자료 : 일본은행



자료 : 한국은행

4. 해외직접투자 2개월 연속 감소

□ 최대 투자지역인 유럽·북미 지역에 대한 투자감소가 전체 해외직접투자 감소를 주도

- ‘16년 11월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액은 48,321억 엔으로 전월비 10.3% 감소

<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(국제수지 기준, 억 엔, %) >

		2015	2015		2016					
			3분기	4분기	1분기	2분기	3분기	10월	11월	1-11월
금 액		696,396	176,072	217,554	196,248	127,675	186,332	53,869	48,321	612,445
증가율	전기비	-11.8	19.0	23.6	-9.8	-35.0	45.9	-32.5	-10.3	-
	전년동기비	-11.8	2.8	9.7	26.7	-13.7	5.8	-23.0	-31.7	-1.1

자료 : 일본 재무성, 주 : 해외직접투자액은 실행액 기준 416901

○ 대양주, 북미 지역에 대한 투자가 크게 감소

- 대양주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는 전월비 85.6% 감소

- 북미 지역과 유럽지역에 대한 직접투자도 각각 22.6% 및 5.9% 감소

○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는 14.6% 증가

- 중국에 대한 투자는 21.1% 증가

○ 對 한국 직접투자는 405억 엔으로 65.3% 증가

< 일본의 주요 지역·국가별 해외직접투자 (국제수지 기준, 억 엔,%) >

국가별	2015		2016						
	금액	증가율	2분기		3분기		11월		1-11월
			금액	증가율*	금액	증가율*	금액	증가율	금액
대세계	696,396	-11.8	127,675	-35.0	186,332	45.9	48,321	-10.3	612,445
아시아	141,593	19.0	18,329	-19.8	17,298	-5.6	7,334	14.6	73,502
중 국	14,659	1.1	3,230	1.6	2,979	-7.8	1,289	21.1	11,862
한 국	4,714	-20.6	900	24.8	729	-19.0	405	65.3	3,199
북 미	237,283	-2.9	28,029	-65.8	31,421	12.1	10,122	-22.6	166,367
미 국	230,435	-2.9	26,166	-67.7	30,391	16.1	9,370	-26.7	161,454
중남미	22,758	49.4	1,844	-48.4	20,084	989.2	1,171	65.6	28,863
유 럽	269,749	-30.4	72,598	-12.7	113,720	56.6	28,596	-5.9	329,260
대양주	19,126	1.2	3,190	9.8	1,743	-45.4	391	-85.6	10,973
중동	1,805	46.9	433	-46.9	136	-68.6	38	-56.8	1,535
아프리카	6,843	7.3	2,153	75.8	1,930	-10.4	669	38.2	6,531

자료 : 일본 재무성, * 전기비

III. 일본의 주요 정책

1. 아베노믹스의 과제와 전망

□ 디플레이션 탈출은 진행 중

- 디플레이션 탈출은 아베노믹스의 최대과제로서 5년째를 맞고 있음. 작년 가을만 하더라도 아베 총리는 디플레이션 탈출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으나 속도가 문제라고 피력한 바 있음
 - 최근 기자회견에서 아베총리는 디플레이션 탈출단계까지는 이르고 있지 못하다고 말함
- 아베총리는 2012년 12월 정권출범 이후 아베노믹스에 의한 엔저·고주가에 힘입어 높은 내각지지율을 유지해왔으나 경제의 선순환은 예상처럼 순조롭지 못한 채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임
 - 경제의 선순환이라 함은 대담한 금융완화에 의한 엔저·고주가로 기업이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이 투자와 임금인상으로 이어져 소비가 증가하여 가일층의 기업수익의 확대를 불러오는 흐름임
 - 그러나 기업수익은 증가했지만 내부유보만 늘어났을 뿐 투자와 임금, 소비는 역부족이었음. 아베노믹스의 핵심인 분배도 2016년 춘투에서 대폭적인 임금인상은 실현되지 못했음

□ 아베노믹스의 어두운 전망

- 그런데다 아베노믹스는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음. 트럼프의 차기 미국대통령 당선으로 세계경제의 불투명성이 확대되는 가운데, 성장전략의 기동인 TPP의 발효가 어렵게 된 데다 소비도 부진하고 금년 세수도 당초 예상치를 1.7조 엔이나 하회할 전망이다
- 이에 아베총리는 2016년 11월에 2017년에는 적어도 금년만큼의 임금인상을 기대한다고 노사 양측에 주문함에 따라 2017년 춘투도 4년 연속 소위 「관제춘투」가 될 공산이 큼
 - 나아가 2016년의 소비세인상 연기와 같이 선순환을 위한 정책은 무엇이든 추진할 태세임

□ 트럼프 장세와 아베노믹스

- 소위 트럼프 장세에 의한 달러고는 당분간 엔저와 주가상승으로 일본경제에 순풍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아베총리 주변에서는 말하고 있음
- 트럼프 차기 미국대통령은 인프라 정비에 적극적이어서 미국경제가 자극되면 일본 경제도 플러스 영향을 받아 2017년 전반에는 아베노믹스에 순풍이 예상되고 있음
- 엔저가 수출기업의 수익증대로, 주가상승이 소비마인드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또 관제 춘투의 결과 일본경제계가 4년 연속 임금인상을 실시하게 되면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게 됨
- 여기에 디플레이션의 탈출선언까지 가능하면 정권뿐만 아니라 경제의 기반도 반석위에 오름
- 다만 과도한 엔저는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음. 식료품 등의 수입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에도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

□ 트럼프 리스크

- 반면 트럼프 리스크도 우려되고 있음. TPP 발효가 어렵게 되는데 그치지 않고,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이제까지의 경제·안전보장체제의 틀을 뛰어넘는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있음
- 세계경제와 안전보장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 시장을 통하여 실체경제도 흔들리게 됨
- 또 미국연방준비이사회(FRB)의 금리인상으로 미일금리차가 확대되면, 일본은 엔저를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지도 모름
- 이로 인한 엔고·주가하락 등으로 아베노믹스가 속도를 잃게 되면, 2018년 9월까지의 총재임기를 노려 일본 여당 내에서 포스트 아베를 목표로 하는 움직임이 강해질 것임

□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부작용

- 일본은행이 2016년 1월 29일 도입한 마이너스금리정책은 대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음
- 이는 민간은행들이 일본은행에 예치한 자금의 일부에 0.1%의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인데, 구로다 총재는 투자와 소비를 자극하여 경제를 살린다는 정책효과를 강조했으나 이 같은 극약처방은 일부에서 부작용도 지적되고 있음

- 구로다 총재에 의하면, 중국경제의 감속과 유가하락으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고 경제가 곤경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기업수익이나 물가에 대한 악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기사회생의 마이너스금리정책을 결정했다는 것임
- 마이너스 금리제도하에서 은행들이 일본은행에 금리를 부과하는 것이 싫어 낮은 금리로도 용자나 국채구입을 하게 되면 시중금리 전체가 하락하여, 개인소비와 설비투자가 활성화되고 경기가 회복, 디플레이션으로부터의 완전탈출이 실현될 것이라는 것이 구로다 총재의 생각임
- 마이너스금리정책의 도입직후에는 10년물국채금리가 2016년 2월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, 주택론의 금리 등도 하락하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였음
- 그러나 마이너스금리정책의 효과를 기업이나 가계에 전달하는 중계기능을 담당하는 은행들의 반응은 심상치 않음. 금리하락은 은행의 수익을 압박하고, 보험회사나 연금기금도 자금운용난에 허덕이고 있음
- 이에 당초 필요한 경우에는 금리를 더욱 내리겠다는 일본은행은 2016년 9월에 재빨리 금융정책의 틀을 전환.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장기금리를 제로%정도로 유도하는 장단기금리조작정책을 새로이 도입

□ 금융정책 전망

- 2016년은 일본은행으로서도 격동의 1년이었으나 연말에 걸쳐 진행된 엔저·고주가는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효과라기보다는, 트럼프 차기 미국대통령의 정책운영에 대한 기대가 가져온 플러스 효과라고 할 수 있음
- 따라서 기대가 실현되지 않고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음
- 2017년의 금융정책 향방에 대해서는, 일본은행이 물가상승률이 2% 달성을 참고 기다리는 현상유지의 1년이 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
- 유가하락의 영향이 일순하고, 일손부족과 투자확대가 진행될 공산이 큼. 이 때문에 물가의 자율적인 상승을 기다리고 있음
- 트럼프 차기 미국대통령이 미국 내 수출기업들의 수익악화를 배려하여 달러 고를 견제할 가능성도 있음. 다시 엔고가 진행되고 물가도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나리오임
- 이 경우 일본은행은 금리의 마이너스폭 확대를 포함한 추가완화가 필요하게 될 것임

IV. 한일 경제관계 분석

1. 대일 무역적자 증가세 반전

□ (총 합)

- '16.12월 대일무역적자는 다시 증가세로 반전, 전월보다 287백만 달러 증가한 2,300백만 달러
 - 대일 수출의 감소가 대일무역적자 확대에 기여
- 12월의 대일 수출의존도는 전월의 5.0%에서 4.9%로 저하된 반면, 대일 수입의존도는 전월의 11.5%에서 11.8%로 상승
 -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의 대일무역의존도는 전월의 7.9%에서 8.1%로 상승
- 2016년 연간 누계로 본 대일무역적자는 23,097백만 달러로 전년보다 2,820백만 달러 확대
 - 대일 수출의존도는 전년과 동일한 4.9%인 반면, 대일 수입의존도 전년의 10.5%에서 11.8%로 상승
 -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의 대일무역의존도는 전년의 7.4%에서 8.0%로 상승

< 2016년 12월 대일 수출입 및 무역수지 (백만달러,%) >

	2016.11월			2016.12월			2016.1-12월	
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감
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기비
대일 수출	2,277	12.6	8.2	2,222	7.8	-2.4	24,357	-4.8
대일 수입	4,290	28.4	1.7	4,521	21.9	5.4	47,454	3.5
무역 수지	-2,013	695	-4.8	-2,300	39.5	14.3	-23,097	13.9

자료 : 한국무역통계

□ (대일 수출)

- '16. 12월 대일 수출은 2,222백만 달러로 전월비 2.4% 감소
 - 이 같은 감소폭은 동기간 중 총수출의 감소폭 -0.5%를 크게 상회하는데다, 일본의 수입증가율이 3.4%로 플러스인 점을 고려하면 대일수출경쟁력이 약화

	대일수출증가율(%)		총수출증가율(%)		일본의 수입증가율(%)	
	전년동기비	전기비	전년동기비	전기비	전년동기비	전기비
2016.11월	12.6	8.2	2.5	8.2	-8.8	0.7
2016.12월	7.8	2.4	6.4	-0.5	-2.6	3.4
2016.1-12월	-4.8	-	-5.9	-	-15.9	-

- 전월과 비교하여, 10대 수출품목에는 변함이 없는 가운데, 광물성연료를 제외한 모든 품목의 대일수출이 감소
 - 광물성연료는 69.8%의 대폭적인 증가폭을 보임으로써 수출순위 1위 자리를 탈환
 - 대일 수출 감소품목 중에서는 산업용전자제품의 수출 감소폭이 -33.3%로 가장 큼
- 2016년 연간 대일 수출 총액은 24,357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4.8% 감소
 - 대일수출 증가품목 중에서는 기계요소공구·금형의 증가폭이 13%로 가장 큼
 - 대일수출 감소품목 중에서는 광물성 연료의 감소폭이 -33.5%로 가장 큼

< 2016년 12월 대일수출 10대 품목 (백만달러, %) >

순 위	품목명	2016.11월			2016.12월			2016.1-12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기비
	총계	2,277	12.6	8.2	2,222	7.8	-2.4	24,357	-4.8
1	광물성연료	235	-18.8	38.2	399	40.5	69.8	2,338	-33.5
2	철강제품	282	24.7	-3.8	268	8.1	-5.0	3,102	4.6
3	전자부품	227	42.2	31.2	216	39.2	-4.8	2,001	-10.6
4	산업용전자제품	180	33.9	22.4	120	-9.5	-33.3	1,470	-33.2
5	정밀화학제품	119	-9.6	5.3	113	2.8	-5.0	1,427	-0.9
6	수송기계	117	11.1	4.5	104	-18.6	-11.1	1,390	11.4
7	석유화학제품	116	39.9	-6.5	100	14.7	-13.8	1,299	0.8
8	금속광물	99	23.7	-7.5	90	13.2	-9.1	1,142	10.3
9	농산물	92	14.0	4.5	80	-2.6	-13.0	942	-3.2
10	기계요소공구·금형	88	11.2	-5.4	77	-5.0	-12.5	1,072	13.0
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□ (대일 수입)

- '16.12월 대일수입은 4,521백만 달러로 전월비 5.4% 증가
 - 이는 동 기간 중 총수입증가율 2.9%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서, 상대적으로 국내시장에서 일본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반영

	대일 수입증가율(%)		총수입증가율(%)	
	전년동기비	전기비	전년동기비	전기비
2016.11월	28.4	1.7	9.3	6.3
2016.12월	21.9	5.4	8.0	2.9
2016.1-12월	3.5	3.5	-7.0	-7.0

- 10대 대일수입품목은 변함이 없는 가운데 전자부품과 수송기계를 제외한 모든 품목의 대일수출이 증가
 - 대일 수입 증가품목 중에서는 정밀기계가 40.1%의 대폭적인 증가를 보임으로써 수출순위 1위로 부상
 - 대일 수입 감소품목 중에서는 수송기계의 감소폭이 -16.2%로 가장 큼
- 2016년 연간 대일 수입 총액은 47,454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3.5% 증가
- 대일수입 증가품목 중에서는 정밀기계의 증가폭이 50%로 가장 큼
 - 대일수입 감소품목 중에서는 석유화학제품의 감소폭이 -19.3%로 가장 큼

< 2016년 12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 (백만달러, %) >

순 위	품 목 명	2016.11월			2016.12월			2016.1-12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	전월비		전년동월비
	총 계	4,290	28.4	1.7	4,521	21.9	5.4	47,454	3.5
1	정밀기계	421	169.0	0.7	590	120.7	40.1	4,044	50.0
2	전자부품	592	40.8	12.1	549	64.3	-7.3	6,035	2.4
3	철강제품	433	18.8	-6.5	490	19.2	13.2	5,313	-6.8
4	정밀화학제품	360	15.6	-1.6	379	4.7	5.2	4,169	7.7
5	석유화학제품	344	3.2	11.7	366	-2.4	6.4	3,859	-19.3
6	기초산업기계	298	18.3	0.3	307	14.6	3.0	3,185	-0.6
7	산업용전자제품	260	27.7	-8.5	296	21.8	13.8	3,198	23.5
8	수송기계	259	34.0	1.2	217	-10.7	-16.2	2,613	6.0
9	플라스틱제품	211	23.3	-2.3	214	12.0	1.4	2,399	3.5
10	산업기계	165	3.8	-1.2	173	-2.4	4.8	2,095	0.9
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2. 일본인 직접투자 큰 폭 증가

□ (동 향) '16.4분기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, 큰 폭 증가

- '16.4분기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는 359백만달러로 전기비 85.1% 증가
 - 건수로는 전기비 40% 증가
 - 동 기간 중 전체 외국인투자액은 전기비 39% 증가
- '16.1-4분기 중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는 1,246백만 달러로 전년동기비 25.2% 감소

- 동 기간 중 전체 외국인투자는 1.9%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, 연간으로는 상대적으로 일본인투자가 부진

<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실적 (신고기준, 건, 백만달러, %) >

	2014		2015		2016.2분기		2016.3분기		2016.4분기		2016.1-4분기	
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일본의 대한투자	352 (21.3)	2,488 (-7.5)	315 (-10.5)	1,665 (-33.1)	82 (34.4)	531 (229.8)	65 (-20.7)	194 (-63.5)	91 (40.0)	359 (85.1)	299 (-5.1)	1,246 (-25.2)
전체 외국인투자	2,463 (-5.6)	19,003 (30.6)	2,698 (9.5)	2,0909 (5.1)	760 (13.9)	6,279 (48.1)	716 (-5.8)	4,495 (-28.4)	844 (17.9)	6,250 (39.0)	2,987 (10.7)	21,299 (1.9)

주 : ()내는 전기비 증가율,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, 외국인직접투자통계

□ (일본기업의 대한 직접투자 사례)

- 한국트라이(주)를 비롯하여 일본 기업인 (주)트라이우드, 더 나이스(주) 등 한국과 일본 기업 5개사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민간 투자개발사업인 에코 힐링 테마타운을 조성(2017.1.22. 부산일보)
- 진해구 웅동지역을 대상으로 사업부지 2~3곳을 비교 검토해 사업지를 확정하고, 면적은 약 15만㎡에 17개 테마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, 사업비는 3,500억 원 정도
- 일본 자동차용 특수금형 업계 히든챔피언인 KTX(주)가 경기도에 전진기지 구축투자
 - 투자금액은 1,000만 달러(FDI, 외국인직접투자 100%)로, 자동차 기업이 집적돼 있는 화성 장안1산단에 KTX(주) 제조공장을 준공(2017.1.20. 경기IN)
 - 경기도는 KTX(주) 공장 설립으로 고용증대와 기술이전 등 국내 자동차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

□ (시사점)

- 국내 투자환경의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, 투자유치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및 민간의 각종 한일교류채널의 네트워킹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, 최근 엔저에 따른 일본 해외투자기업들의 유턴 사례분석 등을 통한 차별화된 對韓투자 유치전략 필요

V. 참고 자료

1. 주요기관 연구보고서(2016.11월~2016.12월)

□ 국내 기관

- 『[일본경제포럼]2017년 국내 부동산시장 전망』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, 2017년 1월17일
<http://www.kjc.or.kr/jpinfo/research.html?bid=issuebrief&qry=read&no=43869>
- 『[일본경제포럼]일본, 아베노믹스의 득과 실』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, 2017년 1월17일
<http://www.kjc.or.kr/jpinfo/research.html?bid=issuebrief&qry=read&no=43869&no=43868>
- 『[일본경제포럼] 저성장시대 위기극복전략』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, 2017년 1월17일
<http://www.kjc.or.kr/jpinfo/research.html?bid=issuebrief&qry=read&no=43868&no=43867>
- 『[일본경제포럼]트럼프정권의 통상전략과 한일의 대응』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, 2017년 1월17일
<http://www.kjc.or.kr/jpinfo/research.html?bid=issuebrief&qry=read&no=43867&no=43866>
- 『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이행 성과와 과제』 KIEP, 2017년 1월15일
<http://www.kiep.go.kr/sub/view.do?bbsId=breifing&nttId=192941&pageIndex=2>
- 『ODA 활용과 철강수출 확대 - 일본 철강업계 사례와 시사점』 포스코경영연구소, 2016년 12월29일
<https://www.posri.re.kr/ko/board/content/14450>
- 『미국·독일·일본의 스마트팩토리 전략』 LG경제연구원, 2016년 12월28일
<http://www.lgeri.com/uploadFiles/ko/pdf/busi/20161128181129048.pdf>
- 『수출확대를 위한 국가별 경제협력방안 수립 : 일본』 KOTRA, 2016년 12월27일
<http://news.kotra.or.kr/user/reports/kotranews/20/usrReportsView.do?page=2&reportsIdx=6864&orderByType=image&searchStartDate=&searchEndDate=&searchR>
- 『최근 일본 기업지배구조 개선 동향 및 시사점』 한국금융연구원, 2016년 12월24일
http://www.kif.re.kr/kif2/publication/pub_list.aspx?menuid=18
- 『일본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실태와 정책 방향 - 제조업을 중심으로 -』 산업연구원, 2016년 12월14일
http://www.kiet.re.kr/kiet_web/index.jsp?sub_num=8&ord=0&pageNo=5&state=view&tab=list&idx=53019

□ 일본 기관

- 『일본·미국·유럽·아시아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』 일본기계수출조합, 2017년 1월23일
http://www.jmcti.org/info/170123_press.pdf
- 『미중무역마찰과 일본』 제일생명경제연구소, 2017년 1월19일
<http://group.dai-ichi-life.co.jp/dlri/pdf/macro/2016/kuma20170118ET.pdf>
- 『일본경제2016-2017:선순환 확대를 향한 전망』 일본 내각부, 2017년 1월18일
<http://www5.cao.go.jp/keizai3/2016/0117nk/keizai2016-2017pdf.html>
- 『일본의 재정금융정책이 안고 있는 과제』 일본종합연구소 2017년 1월14일
<http://www.jri.co.jp/MediaLibrary/file/report/other/pdf/9734.pdf>
- 『경제산업시책 관련 주요 과제』 일본 참의원, 2017년 1월14일
http://www.sangiin.go.jp/japanese/annai/chousa/rippou_chousa/backnumber/2017pdf/20170113123.pdf
- 『경제지리 시뮬레이션 모델』 아시아경제연구소, 2017년 1월11일
http://www.ide.go.jp/Japanese/Dogachannel/pdf/20161028_kumagai.pdf
- 『관민일체조작으로 촉진하는 해외인프라사업』 미즈호종합연구소, 2017년 1월5일
http://www.ide.go.jp/Japanese/Dogachannel/pdf/20161028_kumagai.pdf
- 『제조업을 지탱하는 고도부재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』 닛세이기초연구소, 2016년 12월31일
<http://www.nli-research.co.jp/report/detail/id=54723&pno=2?site=nli>
- 『일본산업의 중기전망:2017-2021년의 수급동향과 사업전략』 미즈호은행, 2016년 12월30일
<https://www.mizuhobank.co.jp/corporate/bizinfo/industry/sangyou/m1056.html>
- 『일본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해야할 것』 다이와종합연구소, 2016년 12월28일
http://www.dir.co.jp/research/report/japan/mlothers/20161227_011545.pdf
- 『일본 산업계의 4차 산업혁명 현황과 전망』 미즈비시도쿄UFJ은행, 2016년 12월28일
http://www.bk.mufg.jp/report/indlook2016/New_growth_strategy_and_the_4th_Industrial_revolution_in_Japan.pdf

2. 주요 경제 일정

<1월 실적>

일자	주요 내용
1	- 개정 육아·간병휴업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* 대상가족 1명당 3번 한도로 총 93일까지 간병휴업의 취득이 가능 등
12	- 아베 총리 필리핀 방문(~13일까지), 日팔라판 정상회담
13	- 아베 총리 호주 방문(~15일까지) * 日豪관광세미나, 日豪비즈니스회의 참석
14	- 日豪 정상회담
15	- 아베 총리 인도네시아 방문(~16일까지), 日인니 정상회담 *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에 관한 日인니 공동성명, 對인니 엔 차관 공여
16	- 아베 총리 베트남 방문(~17일까지), 日베트남 정상회담 * 국가수석, 공산당중앙집행위원회서기장, 국회의장과의 회담, 對베트남 엔 차관 공여
17	- '16년 방일 외국인객수 발표 * 총 2,403만 명(관광, 비즈니스 포함), 한국인 방문객 509만 명(전년대비 27.2% 증가)
20	- 통상국회 소집(~6월 18일까지) * '17년도 예산안(9조 4,547억 엔) 등 심의
25	- '16.12월 무역통계 속보(재무성) * 12월 수출은 6조 6,790억 엔(전년동월대비 5.4% 증가)으로 15개월 만에 증가 ** 증가에 기여한 품목은 자동차부품(16.5% 증가), 반도체등전자부품(14.9% 증가), 전기회로등기기(17.6% 증가) 등

<2017년 주요 일정(예정)>

일자	주요 내용
2/10	- 아베 총리 미국 방문, 미일 정상회담
2/24	- 프리미엄 프라이데이(Premium Friday) 시행 * 경산성과 경단련이 책정한 개인소비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활동. 기업은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직원을 15시에 퇴근시켜 쇼핑이나 외식 등을 하도록 권유
4월	- 간호복지사, 보육사의 보수 상승 제도 도입
5/1	- 에코카 감세 대상 제한 엄격화
7월	- 가상통화에 대한 소비세 철폐 - 마이넘버 포털사이트 오픈
10월	-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납부 기간이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 * 이것으로 연금 수급자는 64만 명 증가하지만, 10년 납부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월 16,000엔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저축이나 다른 수입이 필요
상반기	- 아베 총리 러시아 방문